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

## 제65차 겨울 워크숍 자료집

- 일시 : 2017년 1월 15일(일) ~ 16일(월)
- 장소 : 강화도 일대 / 라르고빌 리조트
- 주최 :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
- 주관 및 후원 : 고려대학교 연구처

## 목 차

- 워크숍 프로그램 ..... 1
  
- 강화도 답사자료 /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xx
  
- 주제발표: “암군과 권신의 시대: 정도전을 생각하다”  
/ 박홍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 xx
  
- 논의 안건: 2017년 학문소통연구회 사업 계획 논의  
/ 학문소통연구회 ..... xx

## 학문소통연구회 겨울 워크숍 프로그램

□ 일시: 2017년 1월 15일(일)~16일(월), 1박 2일

□ 장소: 강화도 일대 및 라르고빌 리조트

날짜	시 간	내 용
15일 (일)	09:00	교우회관 앞 관광버스 출발 (2시간 소요 예상)
	11:00~12:00	광성보 방문
	12:00~13:00	점심 식사 (마니산 산채)
	13:00~14:30	전등사 방문
	14:30~15:00	숙소로 이동
	15:00~15:30	숙소 입실 및 휴식
	15:30~18:00	겨울 워크숍 - 1부: “암군과 권신의 시대: 정도전을 생각하다” (정치외교학과 박홍규 교수) - 2부: 2016년 결산, 새해 주제 선정 및 세부 계획 논의
	18:00~18:30	휴식 및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
	18:30~20:00	저녁 식사 및 휴식 (선창Hits)
16일 (월)	08:00~09:00	아침 식사 (리조트 한식)
	09:00~12:00	강화읍 탐방 및 유적지 방문 - 부근리고인돌군 및 강화역사박물관 - 용흥궁, 성공회 성당, 강화 남문, 강화고려궁지 등
	12:00~13:00	점심 식사 (왕자정 묵밥집)
	13:00~15:00	귀 경

□ 참가자 명단

최인찬, 조윤정, 양형진, 박홍규, 어도선, 이우진, 정종미, 선 경, 한희진,  
김동원, 권숙인, 안순신, 최동식, 전성기, 최용철, 최광식, 유석훈, 송재혁

# 강화도 답사자료

최광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강화도 전체 지도
2.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3. 강화역사박물관
4. 강화도의 고인들
5. 전등사, 선원사
6. 외규장각, 광성보, 초지진
7. 성공회 강화성당
8. 강화산성 남문
9. 강화고려궁지

여기에 강화도 답사자료(한글 파일) 넣어주세요.

# 주제 발표

암군(暗君)과 권신(權臣)의 시대: 정도전을 생각하다

박홍규 교수 (정치외교학과)

여기에 박홍규 선생님 pdf 파일을 끼워넣어 주세요.  
(2페이지)

## 프롤로그

# 정도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KBS 드라마 <정도전>의 허구성

#### 프롤로그 - 고산 구릉지대 (낮)

능선 너머에선 검은 연기가 몇 가닥 피어오르고, 고개를 넘어온 피난민들이 비탈길을 따라 줄지어 내려온다. 하나같이 혈벗고 굶주림에 지친... 까마귀 한 마리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는다. 까마귀의 시선을 따라가면 버려진 노인 한 명이 주먹밥을 손에 쥔 채 지계에 덩그러니 앉혀져 있다. 까마귀가 날개를 한번 퍼덕이면... 기력이 다한 노인의 몸이 서서히 기울어진다. 지계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피난민들... 주먹밥을 뺏고, 걸옷을 벗기고, 누더기가 된 짚신마저 가져가 버리는... 행렬은 다시 덩덤하게 이어지고 노인은 조용히 죽음을 맞는다. 그 참혹한 행렬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 답수룩한 수염... 초췌한 얼굴... 다 헤져 천조각으로 동여맨 짚신... 그러나 안광만은 형형히 빛나는... 정도전이다.

#### 프롤로그 - 고개 너머 전쟁터 (낮)

한바탕 격전이 치러진... 뒤엎긴 고려군과 왜구의 시체들... 주인을 잃고 널브러진 병장기와 군기들... 군데군데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한복판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걸어오던 정도전 멈춘다. 시체들을 물끄러미 보던 시선이 초겨울의 싸늘한 태양으로 향한다. 눈부신 듯 실눈을 뜨는 정도전의 얼굴 위로...

정도전 (E)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다. 하늘은 오래 전에... 고려를 버렸다.

프롤로그 - 정상 (낮)

깎아지른 절벽 위... 허공 위로 불쑥 솟구친 손이 악착같이 돌부리를 거머쥔다. 사력을 다해 기어 올라온 정도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아래 펼쳐진 함흥평야를 굽어본다. 저만치 평야의 끝에 자리 잡은 이성계의 진영이 보인다.

<자막 : 서기 1383년 가을, 고려 함주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201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모았던 KBS 대하사극 <정도전>의 첫 장면이다. 이어지는 이성계를 마주한 장면에서 정도전은 마음속으로 말한다.

정도전 (빨히 보는... E) 이 자와 함께... 고려를 무너뜨릴 것이다.

정도전 (E) 이 자와 함께 난세를 끝장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9년간의 유배와 유랑 생활 끝에 함주막咸州幕으로 이성계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하늘이 준 왕조의 수명(천명天命이라고 한다)이 다한 고려를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한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 이성계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세 개의 프롤로그를 배경으로 작가는 정도전 본인의 입을 통해 정도전이 혁명가임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우왕 9년(1383)에 함주막으로 이성계를 찾아간 사건事件은 정말 있었는가? 둘째, 이 시점에서 정도전이 혁명을 결단했다는 것은 사실事實일까? 셋째, 누가 어떻게 이 사건에 혁명의 의미를 부여했는가? 결론부터 얘기 하자면, 그 사건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누가 그 사건에 혁명의 의미를 부여했는

가? 훗날 세종대 작품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작자가 확정적으로 부여했다.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이 시점에서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결단하기는커녕 염두에 두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작가는 무슨 근거로 첫 장면을 만들었는가?

## 사학계의 틀린 정설

역사 연구자는 사건을 확정하고, 사실에 접근해,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한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연구자의 관점과 사고력, 사용하는 사료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 즉 학설이 제시된다. 경쟁하는 학설들 사이에 한동안 어느 것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를 겨루다가, 한 학설이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학설은 정설定說로서의 권위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연구자의 덕목으로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진실성'이 요구된다.

역사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역사 연구자가 밝혀낸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기초해 제작된다. 그렇지만 역사드라마는 역사교육을 위한 장르가 아니다. 드라마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드라마는 사건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재미를 위해서 드라마 작가는 사건과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직접 1차자료(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사용해 드라마를 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작가에게 '객관성'과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재미를 창출하는 '상상력'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작가의 상상력이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 작품은 역사 드라마라는 장르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 지점은 어디일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작가는 사건과 사실이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상상력이 펼쳐가는 원심력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작품을 쓰게 된다. 작가는 매 순간 사실과 재미의 긴장관계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 곡예는 잘 하면 멋지기도 하지만 까딱하면 위

함하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안전하면서도 멋진 곡예가 가능하다면 작가에게는 그보다 좋을 수가 없다. 어느 사건, 사실 그 자체가 흥미로워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시청자의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작가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드라마 〈정도전〉의 작가가 함주막으로 이성계를 찾아가는 사건을 첫 장면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이토록 재미있는 사건이 몇 개나 있겠는가? 이제 이 장면에 대한 사학계의 설명을 들어 보자.

1383년 가을, 9년간의 귀양·유랑 생활에 지친 정도전은 멀리 함경도 여행을 떠났다. 지금의 함흥인 함주로 이성계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당시 이성계는 동북면도지휘사로서 동북지방의 국토방위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가 당시 왜구토벌로 명성이 높은 무장 이성계를 찾아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혁명을 모의하기 위함이었다(한영우, 1999, 40).

이성계와 마음을 합친 그는 이듬해인 1384년 봄에 김포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해 여름 다시 함주를 찾아갔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혁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같은 책, 41).

이 설명은 지금까지 사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그리고 이 설을 추종하는 후속 연구들이 정설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드라마 〈정도전〉 제작의 준비 과정에서 한 역사 전문가에게 자문이 요청되었다고 한다. 그 요청에 응해 이루어진 집중 세미나 형태의 몇 차례 강연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정도전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나 승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간의 유랑 생활 속에서 쌓은 사상을 실현할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383년에 승부수를 던집니다(이덕일, 2014, 83~84).

정도전이 갖고 있던 혁명 사상이 이성계가 갖고 있던 군사력과 만나는 때, 즉 이성계의 군사력을 혁명 무력으로 전환시키는 때가 1383년입니

다. 그 10년 후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섭니다(같은 책, 96).

이 강연은 사학계의 정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더 나아가 강연자는 “이 성계는 정도전이 찾아왔을 때 이미 왕이 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같은 책, 96)” 라고까지 언급한다.

이렇듯 사학계의 설명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롭다. 드라마 작가는 사학계의 보증을 받은 사건에다 자신의 상상력으로 몇 개의 화면을 배치해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라마의 첫 장면을 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1383년 사건의 존재 여부는 확정할 수 있어도, 그 사건의 사실성과 의미성은 의심스럽다. 원래 함주막 사건은 세종 대에 저술된 《용비어천가》에서 역성혁명과 그 혁명의 주체인 이성계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소품’ 중의 하나였다. 본래 사건의 사실성과 의미성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소품에 현혹되어 제시된 역사 연구자의 학설을 드라마 〈정도전〉은 시청자들에게 퍼뜨렸던 것이다. 그 결과 드라마 〈정도전〉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도전의 진상은 시청자들로부터 더욱 멀어져 버렸다.

## 신뢰할 수 없는 《태조실록》

정도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1차자료는 《태조실록太祖實錄》이다. 그러나 《태조실록》은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 기록은 1392년의 혁명(고려의 찬탈)으로 시작해 1398년의 정변(제1차 왕자의 난, 무인정변戊寅政變)으로 끝이 난다. 거기에는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두 권력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따라서 《태조실록》이라는 텍스트를 그대로 신뢰하면 ‘기록 맹신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어 있는 흔적을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태조실록》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태조실록》의 제작과 맞물려 있던 《고려사高麗史》 제작부터 시작하자.

1392년 7월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해 새로운 왕조의 태조로 즉위한 이성계는 곧바로 10월에 정도전 등에게 《고려국사高麗國史》(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고려사》로 확정된다)의 편찬을 명한다. 그리고 2년여 만인 태조 4년(1395) 1월에 책이 완성되자 태조는 정도전을 극찬하며 포상했다. 목숨을 건 권력투쟁이 종결되자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전조의 역사 서술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고려실록을 비롯한 사초史草(기초적인 사료)들 중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 선별되고 마음대로 수정되었다. 특히 공민왕대 이후의 내용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은 이성계의 찬탈 행위를 유교적 원리, 즉 맹자의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이라고도 함)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고려의 신하인 이성계가 군주인 공양왕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이성계는 하늘의 명[天命]과 인민의 마음[人心]에 따라 폭군인 공양왕을 쫓아내고 인민을 위한 어진 정치[仁政, 민본民本정치]를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것이다. 고려의 공양왕-신하(정몽주 등 고려 유지 세력)-인민으로 구성된 정치공동체를 부정하고, 조선의 태조(이성계)-신하(정도전 등 조선 건국 세력)-인민으로 성립된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고려국사》는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세력의 입장에서 기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398년에 또 다른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권력의 주인이 바뀌자 이성계의 명을 받고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국사》에 대한 개정이 시도된다.

태조 7년(1398) 이방원은 정변을 일으켜 이성계-정도전-인민으로 성립된 권력구조를 전복시키고 이방원-하륜-인민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세웠다. 이 정변에 공을 세운 하륜은 제거된 정도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태종 14년(1414)에 이르러 태종은 하륜 등에게 《고려국사》의 개정 편찬을 명했다. 원래 태종은 《고려국사》의 태조 관련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여기고 있었고, 하륜 또한 《고려국사》에 우왕 이후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고 하며 개정을 요청하자 태종이 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계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이성계와 정도전의 합작품인 《고려국사》를 개정하기는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이성계의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이성계의 혁명과는 달리 이방원의 정변은 유학의 원리로는 공공연히 정당

화될 수 없었다. 아버지이자 군주인 이성계를 정변을 통해 몰아낸 이방원의 행위는 유교 국가의 최고 원리인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였다. 이성계가 살아 있는 한 정변의 정당성은 원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윽고 태종 8년(1408) 이성계가 사망하자 이방원은 바로 그 다음해에 하륜에게 역사 서술을 명한다. 그런데 이때 하달된 명은 《고려국사》의 개찬이 아닌 《태조실록》을 편찬하라는 것이었다. 이방원이 비록 《고려국사》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는 있었지만, 전조의 역사를 개정하는 것보다 이성계와 투쟁해 쟁취한 권력을 승자의 입장에서 새로이 서술해 놓는 것이 이방원에게는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그 권력투쟁의 장본인이었던 하륜의 손을 통해 1413년에 완성된다. 그리고 하륜이 《고려국사》 개정 작업의 명을 받은 것은 바로 다음해였다. 하륜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고려국사》의 개정 작업을 마치지 못했지만,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고려사》로 완성되었다.

왕조교체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과 사실에 한정해 본다면, 오늘날 전해지는 《고려사》는 《태조실록》의 부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조실록》이 확정한 기준에 따라 《고려사》가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사》는 고려의 역사가 아닌 조선을 위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조실록》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위한 역사인가? 아니다. 《태조실록》의 서술은 1398년의 이방원의 정변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1392년의 이성계의 혁명은 이미 지나가 버린 패자의 시간이 되었다. 《태조실록》의 주인공은 태조 이성계가 아닌 태종 이방원인 셈이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나라는 《태조실록》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이방원과 하륜의 나라로 바뀌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륜이다. 그는 고려 말의 권력투쟁 때 이색, 정몽주 등과 뜻을 같이한 고려 유지 세력의 일원이었으나, 조선 건국 이후 새 왕조의 회유책에 응해 출사한 '변절형' 인물이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건국 세력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에서는 그가 빛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무인정변 때 정도전의 당파를 선제공격할 것을 주장하고 군사 동원을 통해 이방원을 지원해 정사定社 1등 공신功臣으로 책정되었다. 이방원의 정변을 통해 건국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역사 서술의 명을 받은 하륜은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

전의 나라는 이방원과 하륜의 나라로 뒤바뀌었다. 패륜悖倫의 나라를 정화淨化하기 위해 정도전이 제물祭物로 바쳐진 것이다.

## 이방원의 정도전 부정하기

1413년 영춘추관사 하륜의 책임 하에 《태조실록》이 완성되었다. 그 이듬해 하륜은 《고려국사》의 개정을 조정에 건의해 태종의 명을 받았다. 다음의 기록에서 하륜이 《고려국사》의 개정을 주장한 이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정도전이 《고려국사》를 편찬하면서) 정운경鄭云敬은 정도전의 부친으로 별다른 재능과 덕행이 없었는데도 정운경전傳(<양리전>에 포함되어 있다)을 지어 칭송했다. 정몽주·김진양 등은 충신이었으나 가차 없이 헐뜯어 몰아냈다. 자기의 일은 비록 사소한 거라도 반드시 기록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에 따라 시비를 판정했고, 그가 결정한 선악은 옛 역사를 그르쳐 놓았다. 이에 하륜이 말했다. “도전의 바르지 못한 심술[心術不正]이 이처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세종실록》, 5년12월29일).

정도전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하륜의 책임 하에 《태조실록》이 제작되었다. 그 작업을 통해 정도전의 인물됨과 정치적 행적은 철저하게 부정되었다. 이 작업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태조실록》의 제작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편찬관 우승범禹承範이다.

우승범은 고려의 명문인 단양 우씨 집안의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우홍수禹洪壽이고 할아버지가 우현보禹玄寶이다. 우현보는 고려 유지 세력의 중추적인 인물로 조선 건국 세력과 최후까지 사투를 벌인 인물이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숙청된 56명 중에 포함되었으며, 그의 세 아들 우홍수, 우홍득, 우홍명은 유배지에서 곤장을 맞고 죽었다. 한편 태조 2년(1393)에 사면

된 우현보는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복관復官되어 정권에 참여했다. 이방원이 고려에서 과거에 급제할 때 우현보가 이방원의 좌주座主(과거를 주관한 사람. 급제자를 문생門生이라고 해 좌주·문생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였던 것이 우현보가 정계에 복귀하는데 작용했을 것이다.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에게 적극 협조해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책봉되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다. 정도전과의 권력투쟁에 패해 아들 셋을 잃었던 우현보가 이방원의 정변을 통해 가문을 부활시켰고, 하륜은 살아남은 그의 손자 우승범을 《태조실록》의 편찬관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우승범이 《태조실록》을 편찬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제 《태조실록》에서 제물로 바쳐진 정도전이 어떻게 요리되었는지를 보자. 요리의 이름은 '정도전 부정하기'였다.

《태조실록》의 편찬자들은 정도전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공적公的인 부분과 사적私的인 부분이다. 혁명과 창업의 과정에서 수행된 정도전의 공적功績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신왕조 건설을 위해 그가 공인公人으로서 수행한 사업은 정변 이후에도 계승해가야 할 것들이었다. 따라서 정도전의 공적인 부분은 인정하거나 묵인하면서, 그 공적 사업의 주체를 자신들로 대체시켰다. 혁명 정신과 혁명 과업을 정변 이후에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수행해가는 것은 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결국 정도전 부정하기는 다른 한 조각인 사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다. 정도전은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정도전의 "심술이 바르지 못하다[心術不正]"는 하륜의 말은 하나의 좋은 예이다. 《태조실록》에는 인간 정도전을 부정하기 위해 많은 '소품小品'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소품들이 현란한 빛을 발하면서 정도전과 관련된 사건과 사실의 진상을 가리고 있다.

## 그렇다면 정도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변 이후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도전에게 붙여진 죄목들이 날조였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졌다. 《태조실록》에 배어 있는 권력투쟁의 '굵직한' 흔적은 지워졌다. 그러나 정도전을 비열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소품들이 새겨놓은 자잘한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처리하면서 진상에 접근해가야 한다.

역사 연구란 세 차원의 작업이 중첩되어 있다. 1차로 시계열적 '사건'을 확인하고, 2차로 그 사건의 '사실'에 접근하고, 3차로 그 사실의 '의미'를 포착한다. 이러한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연구자는 역사의 진상에 한발 한발 다가가게 된다. 프롤로그가 끝나고 곧이어 본장으로 들어가면 독자들은 정도전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상이한 장면들에 부딪히게 된다. 배어진 흔적이 처리되면서 살아나는 원상原象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 '사상思想'이라는 까다로운 약품이 사용된다. 비록 그 약품이 감상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감상해주길 기대한다.

## 각 장별 내용

### 1장 난세를 겪다

정치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그 여건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성장해간다. 여러 여건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가족이고, 가장 포괄적인 것은 시대이다. 이 책의 첫 장에서는 그의 가족 사항과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치가 정도전을 만나러 가는 첫발을 디더보고자 한다. 아버지 정운경은 고려 말 벼슬을 지낸 청백리였고, 어머니는 선비 가문 태생의 우씨禹氏 부인이다. 여기서는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논란이 이어져온 어머니 쪽 가계 문제를 검토하여, 이 문제가 무인정변 이후 시도된 ‘정도전 부정하기’의 일환이었음을 밝혀보기로 한다. 아울러 정도전의 고향과 삼봉이라는 호에 대한 다양한 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이어서 정도전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폭넓게 조망할 것이다. 여기서 서술되는 고려 말기의 시대상은 정도전이 겪고 글로 남긴 것이다. 거기에는 국가는 위태롭고 왕권은 취약하며 백성은 궁핍한, 그야말로 총체적 난세의 시대에 대한 고민과 진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 2장 주자주의의 세계로

현실 정치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난세의 어둠이 짙어지면 치세로 이끄는 이념의 등불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자주의라는 정치이념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훗날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정도전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이번 장은 주자학에 ‘정치성’을 더해 필자가 새롭게 이름붙인 ‘주자주의’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책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정도전의 내면세계를 만나기 위해, 주자주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자주의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정도전이 학업을 시작해 벼슬길에 나아가 성균관에 합류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그 사이 정도전은 정몽주를 만나 학문적 우정을 나누기도 했고, 삼각산의 ‘옛집’에 머무르기도 했다. 이러한 정도전의 젊은 시절 행적을 따라가며, 그가 주자주의 세계의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 3장 정치적 고뇌

정치란 현실과 이념의 차이를 좁혀보려는 노력의 과정이다. 정치가는 이념에 따라 현실을 변혁시켜보기도 하고, 이념을 벗어던지고 현실에 안주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항상 좌절하고 고뇌하는 시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가며 정치가로서 성숙해간다. 공민왕 사후 우왕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도전은 당시 실세였던 정치가 이인임의 친원 외교정책에 반발하다가 나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유배지에서 정도전은 지배층인 ‘사士’로서와 사상적인 무장을 하고, 동시에 민초들과 함께 호흡하며 피지배층으로서의 ‘민’의 참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은 정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난세의 민이 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처절한 시련을 겪게 된다. 그가 남겨놓은 글과 시를 통해 고뇌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깊은 고뇌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도전은 함주막의 이성계를 찾아간다. 이 장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적과 관련하여 프롤로그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것이다. 그는 이성계와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지만 또 다시 좌천되고 만다. 이러한 정치적 부침 과정 속에서 성숙해가는 정치가 정도전의 모습을 자세히 추적해 보기로 하자.

## 4장 권력을 향한 이념투쟁

‘권력’은 정치의 꽃이고,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투쟁의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투쟁에 동원되는 수단 또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정치답기 위해서는 ‘이념’이라는 요소가 권력투쟁의 방식과 수단에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말 정치 세력들 사이에 권력을 향한 이념투쟁이 벌어진다. 이번 장에서는 토지 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을 달리하는 여러 정치세력들 사이에 전개된 권력투쟁의 양상이 묘사될 것이다. 정도전을 포함한 잠재적 신세력은 ‘현재화된’ 세력으로 거듭나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중흥’(고려의 부흥)을 내걸고 시작한 이들의 투쟁은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이윽고 일부의 급진파는 ‘혁명’(새 왕조의 건설)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도전이 신봉한 주자의 혁명사상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정도전이 어떻게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돌파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권력투쟁의 끝자락이 ‘찬탈’로 변질된 현실 속에서 주자주의자 정도전의 실존적 고민과 결단의 순간도 만나게 될 것이다.

## 5장 소중화의 기반을 닦다

진정한 정치가라면 가장 두려운 것은 후세의 평가일 것이다. 정치가를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정치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권력을 손에 넣는 순간부터 업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 권력이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업적 창출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건국 이후 실권을 장악한 정도전이 찬탈로 출발한 조선왕조를 번듯한 정통왕조로 만들어가는 활약상이 펼쳐진다. 그는 소중화, 즉 동쪽의 작은

중화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차근차근 발휘해갔다. 태조의 즉위교서 작성으로부터 시작된 정도전의 국가건설 기획들을 ‘왕권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재상주의’ 혹은 ‘신권론’이라는 기존의 설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제 국방, 경제, 건설, 교육 등 다방면에서 추진된 정도전의 활동을 차례로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활동이 동시대의 다른 정치가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음미해보자.

## 6장 천하를 품다

정치는 국가 안팎으로부터 밀려오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한다. 특히 약소국의 정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을 확보해야 하는 준엄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전술’을 구사하기도 한다. 명나라 중심의 천하질서 속에서 어떻게 해서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았고, 조선의 문명 역시 중화 문명의 아류가 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도전의 시야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지나 중국의 대륙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생각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 쪽 여진족의 야만 세계와 바다 건너 일본 오랑캐를 품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정도전이 신생 국가 조선을 중심에 놓고 주체적으로 설정한 ‘중화공동체’ 전략을 밝혀볼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의 사대 정책은 이러한 상위 차원의 국가 전략을 전제로 한 하위 차원의 것이었음이 밝혀질 것이다. 나아가 종종 민족의 융혼한 기상이라고 찬양되던 정도전의 요동 공벌 기획을 재검토한다. 이것은 조선의 중화공동체 전략과 사대 정책이 당시 명나라와의 갈등으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정도전이 구사한 방편적 ‘전술’이었다.

## 7장 주자주의자의 죽음

한 국가의 헌법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정변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치가는 정변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정변에 의한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왕조 교체기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정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1398년 이방원이 주도한 무인정변은 새 왕조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려 했던 정도전을 때 이른 죽음에 이르게 했다. 역사 이래 중국과 한반도의 정치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정도전이 왜 그렇게도 간단하게 정변의 희생자가 되었을까? 이방원이 자신이 일으킨 정변을 정당화했던 사직안정론의 논리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후 무인정변과 관련해 기존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왕권 대 신권’의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한비자(법가)적 시각을 가진 이방원과 주자주의(유가)적 시각을 가진 정도전을 비교·대조해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도전이 왜 당했는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념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고군분투했던 정도전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음미해보면서 그와의 만남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에필로그

### 광화문 광장 촛불의 함성 융성한 인재 아름다운 정치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촛불의 함성이 하늘에 닿았다. 마침내 대통령이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그가 정치의 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몇몇의 시종자가 그를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그의 주변에는 그와 ‘친하다는 집단’이 생겼다. 집단원들의 구성은 수시로 변했지만 그는 그들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다. 마침내 그들은 ‘국민 행복’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가 선 국정國政의 무대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밝은 부분과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부분이다. 그가 명과 암의 이중 무대를 오가며 연기하는 동안, 그와 친하다는 집단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집단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패권霸權’이라고 했다. 대다수의 국민과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소수의 특권자들과 결탁하여 한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다. 정치는 국민의 일상적 삶으로부터 멀어졌다. 오로지 패권에 의한, 패권을 위한 정치가 자행되었다.

그들이 자신들이 구축한 지상 낙원에서 탐닉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고단하고 힘겹게 되어갔다. 취업, 결혼, 양육이라는 원초적인 삶의 터전조차 꾸리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행복’은 커녕 일상적인 삶조차 버거워졌다. 신음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래도 그들은 국민의 신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또 즐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놀던 무대 전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어둠의 부분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탄식은 촛불로 타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것이다.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던 신비의

장막이 찢겨지고, 그를 떠받치던 권력의 조각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다. 드러난 민낯과 처참한 잔해.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고려 말기.** ‘권문세족’이라는 집단이 있었다. 그들은 고려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문화를 향유하던 소수의 특권 세력이었다. 공민왕이 시해되자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들의 대표자인 권신權臣 이인임은 당시 열 살의 우왕이라는 어릿광대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중국 대륙에서는 강대국의 판세가 변화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준동하여 한반도 내륙 깊숙이 침탈하고 있었다. 안으로 특권 세력의 착취와 밖으로 잔악한 침략자의 칼날에 백성은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백성의 신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왕은 국정과는 단절된 세계에서 향락과 방탕의 삶을 이어갔다. 그는 권신이 차려준 화려한 무대에서 광대처럼 살았다. 그 무대는 권신이 둘러친 어둠의 장막 속에 설치되어 있었다. 역사서는 그를 ‘암군暗君(어두운 군주)’이라고 기록했다.

난세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신음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지자 새로운 시대의 빛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 시대를 열어줄 이념의 등불을 향해 신세력으로 성장해갔다. 1392년 백성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민심을 대변하는 신세력에 의해 쫓겨났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정도전.** 그는 권신과 암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랜 기간 그 자신이 백성의 처지에 놓여 지기도 했다. 마침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자 그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암군을 세워놓고 권신이 농단하는 정치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길은 두 방향이었다. 하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도를 운영할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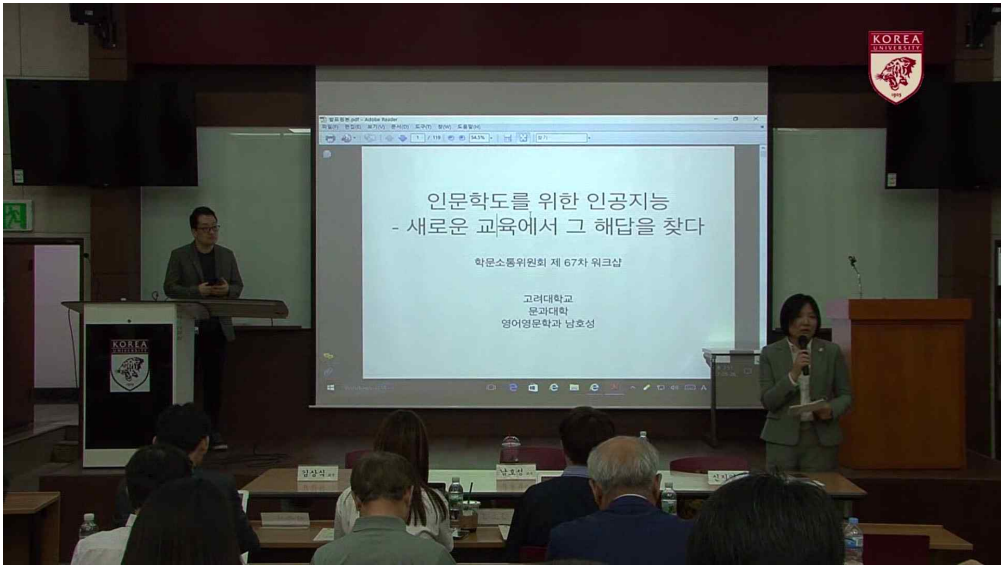
정도전은 조선의 국가 제도를 《조선경국전》에 담아냈다. 마치 오늘날

의 헌법에 해당한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신하들과 더불어 《조선경국전》이 제시한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다짐했다. 《조선경국전》은 훗날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좋은 정치는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제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정도전은 잘 알고 있었다. 먼저 신하들을 위해 《경제문감》을 저술했고, 이어서 군주를 위해 《경제문감별집》이 쓰여 졌다. 그리고 그는 실행했다. 경연을 열어 군주를 가르쳤고, 서연을 열어 세자를 가르쳤으며,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세웠고, 과거의 시험관이 되어 새로운 인재를 뽑았다. 그가 만들고자 했던 새 나라는 “융성한 인재”로 “아름다움 정치”가 펼쳐지는 나라였다. 그런 정치를 통해 국방은 튼튼하고 백성은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다.

지금. 차기 대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대선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고 대선 주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서 정치권에서 단연 눈에 띄는 주장은 개헌론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개헌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누가 선출되더라도 1987년에 탄생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 하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재건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정치권에서의 주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국민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한다. 사람이 그대로 인데 제도만 바꾼다고 곧 바로 좋은 정치가 실현되리라고 믿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고 있다.





# 학문소통연구회

## 2017년 사업 계획

1. 2017년 워크숍 연간 주제 선정
2. 2017년 월별 일정 논의
3. 참고 자료 ①: 2016년 활동 정리
4. 참고 자료 ②: 2016년 결산 보고
5. 참고 자료 ③: 그동안의 명사초청강연

## 1. 2017년 연간 워크숍 주제 선정

- 2010년 주제: 아름다움에 대한 학제 간 연구
- 2011년 주제: 자연과의 소통을 위한 학제 간 연구
- 2012년 주제: 삶의 질에 관한 학제 간 연구
- 2013년 주제: 학문융합 시대의 소통과 문화
- 2014년 주제: 틀, 안과 밖: 새로운 소통의 모색
- 2015년 주제: 교육, 우리 사회 근본을 구성하는 문제
- 2016년 주제: 나눔 그리고 그 너머
- 2017년 주제:

## 2. 2017년 월별 일정 논의

행사	예정 일시	주제	발표자
워크숍	3월 31일(금)		
명사초청강연	4월 28일(금)		
워크숍	5월 26일(금)		
여름 워크숍	7월 중순경		
워크숍	9월 29일(금)		
심포지엄	10월 27일(금)		
워크숍	11월 24일(금)		
명사초청강연	12월 1일(금)		
겨울 워크숍	2018년 1월 중순경		

### 3. 참고 자료 ①: 2016년 연구 활동 정리

#### □ 제60차 워크숍, “나눔 그리고 그 너머를 보다”(2016. 03. 25.)

발표 1: 나눔과 봉사의 이해(영어교육과 교수 어도선)

발표 2: 개도국 현장에서 본 한국의 개발 나눔(국제학부 교수 박성훈)

사회: 양형진 교수, 토론: 홍순철, 이희조, 윤인진, 권성우 교수

#### □ 제61차 워크숍, “나눔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동조합의 미래”(2016. 04. 29.)

발표 1: Good Neighbors and Bad Employers

- Two Fac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경영학과 교수 김동원)

발표 2: 고대에서 협동을 다시 생각한다

- ‘고생만사’와 ‘마중물’을 넘어... (사회학과 교수 김철규)

사회: 윤범철 교수, 토론: 이재학, 김세용, 김상식, 안병일 교수

#### □ 제6회 명사초청강연, “중용 정의론으로 한국정치를 보다”(2016. 05. 27.)

발표: 최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사회: 박홍규 교수, 토론: 어도선, 한희진 교수

#### □ 여름 특별워크숍, “X프로젝트” 모임 (2016. 07. 15.)

#### □ 제62차 워크숍, “희망을 나누다: 학생 창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2016. 09. 30.)

발표 1: 나눔의 관점에서 본 학생 창업(한국피씨피 대표 김유신)

발표 2: 나눔의 관점에서 본 북한 의료

- 탈북대학원생들과의 동행(의과대학 교수 김신곤)

사회: 한두봉 교수, 토론: 이종호, 인호, 어도선, 송태진 교수, 이민우, 김재원

□ 제63차 워크숍,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통: 인간과 기계, 나눔을 논하다”(2016. 10. 28.)

발표 1: 인공지능과 인간 - 공유와 나눔은 가능한가(뇌공학과 교수 이성환)

발표 2: 논리 및 컴퓨터 언어의 철학적 고찰(공과대학 명예교수 안순신)

사회: 우건조 교수, 토론: 양형진, 도락주, 남호성, 김재혁 교수

□ 제64차 워크숍, “자연과 사회 속의 협력과 공존”(2016. 11. 25.)

발표 1: 기업과 비영리 조직 간의 협력은 가능한가(경영대학 교수 문형구)

발표 2: 자연세계에서의 나눔 - 상호연관과 상호의존(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 양형진)

사회: 남기춘 교수, 토론: 김현섭, 한금선 교수

#### 4. 참고 자료 ②: 2016년 결산 보고

3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3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회의비	276,500	연구보조원 인건비	400,000
세미나 개최 경비	1,105,780	기타 경비	104,500
전문가 활용비	1,100,000	<b>소계</b>	<b>2,986,780</b>
4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4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회의비	231,000	연구보조원 인건비	400,000
세미나 개최 경비	1,389,200	기타 경비	49,075
전문가 활용비	1,100,000	<b>소계</b>	<b>3,318,375</b>
5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5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회의비	157,000	연구보조원 인건비	400,000
세미나 개최 경비	1,246,120	기타 경비	39,600
전문가 활용비	800,000	<b>소계</b>	<b>2,501,420</b>
7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7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세미나 개최 경비	1,012,000	기타 경비	50,600
전문가 활용비	-	<b>소계</b>	<b>1,062,600</b>
9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9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회의비	182,000	연구보조원 인건비	400,000
세미나 개최 경비	1,120,360	기타 경비	8,900
전문가 활용비	1,300,000	<b>소계</b>	<b>3,011,260</b>
10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10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회의비	304,000	연구보조원 인건비	400,000
세미나 개최 경비	943,070	기타 경비	5,800
전문가 활용비	1,000,000	<b>소계</b>	<b>2,652,870</b>
11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11월 지출항목	지출 금액(원)
회의비	210,000	연구보조원 인건비	400,000
세미나 개최 경비	985,730	기타 경비	21,000
전문가 활용비	900,000	<b>소계</b>	<b>2,516,730</b>

- 2017년 1월 15일 현재 잔액: **6,649,965원**

- 지출 예정 항목과 금액: ① 2017년 1월 워크숍 비용: 약 4,500,000원

② 세 번째 단행본 출판 보조비 일부: 2,000,000원

## 5. 참고 자료 ③: 그동안의 명사초청강연

구분	일 시	강연자	강연제목
1회	2012.05.23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류 3.0 시대의 문화정책: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2회	2012.10.26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언캐니 벨리: 로봇디자인과 학문의 융합
3회	2013.05.31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푸리에의 정념인력과 만유인력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류의 현장: 문화와 산업 간의 소통
4회	2014.04.28	김중만 (사진작가)	김중만의 사진관(館), 사진관(觀)
5회	2015.12.02	서수민 (KBS PD)	예능에서 배우는 트렌드: 같이의 가치
6회	2016.05.27	최상용 (전 주일전권대사)	중용 정의론으로 한국정치를 보다